

장백산천지

제 60 호

2007년 11월 23일

금요일

가짜 저질 상품은 국제시장의 버림을 받고 있다

중국산 제품 안전 문제는 최근 해외보도에서 끊임없이 들을 수 있는데, 종이속 만두로부터 가짜 계란, 가짜 차잎, 유독성 과일, 유독성 치약, 유독성 장남감과 병든 돼지고기, 유독성 입쌀, 대변으로 만든 썩은 두부 등 제품도 다양하고 수량 역시 아주 많다. 현재 미국은 이미 중국의 일부 양식(养殖) 해산물 입항을 금지하였다. 중국 제품의 안전 문제는 각국의 대화 상업 정책을 검토하게끔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중국의 가짜 저질 상품에 대비하고 있다. 이런 가짜 저질 상품의 성행은 절대 우연한것이 아니라 필연적이다. 왜냐하면 돈만 추구하고 신용을 지키지 않는 중공이 자신의 소집단 리익을 위해 어떠한 수단도 가리지 않기 때문이다.

과감히 사회문제를 폭로하면서 신문(新闻)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수시로 겹겹의 압력에 직면하게 된다. 예를 들면 "종이 속만두"를 폭로한 북경 텔레비전 방송국 초빙 임용기자 자북가(訾北

佳)등 6명은 "가짜뉴스 제작"이란 죄명이 씌워져 공안기관에 형사구류 되였다. 중국의 매체는 이미 사회 감독 기능을 상실했으며 중공에 의해 정치 선전 기구로 탈바꿈했다. 이는 중국 사회의 성실 위기를 더욱 가속화시켰다.

장기적으로 기만과 거짓말의 환경 속에서 생활한 많은 사람들은 이미 마비되었으며 못쓰게 된 사람들의 마음은 도리어 전반 사회의 성실 기준을 하강시켜 갈수록 더 낮아지게 되였다. 중공이 인류의 기본 도덕관과 가치관에 대한 비방과 포기는 중국 사회로 하여금 가짜 저질 상품의 범람을 초래했고 잃은 것은 국제시장만이 아니라, 그것이 중국 사회에 가져다주는 잠재적 위기는 어림잡을 수조차 없게끔 한다.

오직 중공이 해체되어야만 중국의 전통적인 도덕이 회복될 수 있으며 중국 사회의 각종 위기가 역전될 수 있다.

“올림픽돼지”

중공이 전통문화에 대한 파괴로 말미암아 성실한 마음은 대륙에서 점차 사라지고 있다. 가짜화폐와 가짜 저질 상품은 물론이고 더욱 사람의 마음을 조이게 하는 것은 식품안전문제이다. 레컨대 돼지에게 빨리 자라는 격수, 약물과 첨가제를 람용하는 문제는 이미 공개된 비밀이다. 얼마 전에 대륙의 중국식품에 대해 전세계에서 질문을 했다. 올림픽운동회에 참가하는 외국인을 위해 중공은 올림픽 고기제품공급상인 천희학(千禧鶴)집단에 비밀리에 오염이 없는 양식(养殖)기지를 선택해 전문인원들이 첨가제와 약물을 사용하지 않으며 매일 돼지들을 2시간씩 단련시키게 하였



다. “올림픽돼지”는 해내외의 웃음거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중공에게 경종을 울려 주었다.

“남니만 대생산”의 진상

나는 하남성사람이고 올해에 82세이다. 어려서 “8로군”에 참가했고 처급간부이며 항전시기 리직간부이다. 중공이 제멋대로 고취한 “남니만 대생산운동”은 실제상 불법적으로 아편을 심는 운동이다. (아래 그림) “9평”에서 장사덕은 독품을 말리다가 집이 무너져 압사당한 사실을 적발했다. 사실은 아편을 심고 만들고 파는 운동은 중공의 점령하고 있는 지역에서 보급되었다. 이리하여 중공은 아편을 팔아 돈을 벌어 군사비용에 썼다. 그 당시 부대의 직책은 독품을 구매하고 운반하는 것이였다. 중공은 정권을 탈취한후 즉시 “진반운동”을 일으켜 그 당시 중공을 위해 아편을 사들인 상인들을 전부 멸구했다. 그들은 총살당할때 억울하다고 웨쳤다. 중공은 이렇게 력사를 뜯어고쳤고 피비린 폭력으로 무고한 백성들을 살해했다.



새소식 “천국악단”은 미국 “로병사절”에 관중들을 감동시켰다



2007년 11월 11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파룬궁학원들로 조직된 “천국악단”은 초청을 받고 “로병사절” 시위행진에 참가하여 관중들의 절찬을 받았다.

인간신화 8 순로인의 기적

나의 아버지는 올해에 80세이다. 그는 전립선암(前列腺癌)과 골암(骨癌)에 걸렸다. 의사의 말에 의하면 이미 말기여서 확산되었기에 극상해야 석달밖에 살지 못한다고 했다. 나의 아버지를 구할수 있는 것은 파룬따파뿐이라고 생각한 나는 아버지를 집으로 모셔와서 파룬궁을 가르쳤다. 80일의 수련을 거쳐 아버지의 두개 암증이 사라지고 건강을 회복했다. 나의 아버지는 <나의 병은 다 낫았고 신체가 건강해졌으니 집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좋은 공법을 고향사람들에게 속히 알려줘야겠다.>라고 감격해 말했다.



폭로

연변박해소식

■ 파룬궁학원 위해령(于海灵)은 11월 6일에 1년반 로동교양판결을 받고 9대로개소에 갇혀 박해를 받고 있다.

■ 도문시석현진 파룬궁학원 지휘(迟辉)는 지난 10월 21일에 대홍구진에서 진상전단지를 배포하다가 악경에게 붙잡혀 왕청현림업국 서산간수소에 갇혀 15일동안 박해를 받다가 석방되었다.



박해

악보

연변악보사례

⊗ 룽정시동성용진소학교 교장 조철고(趙哲稿)는 수많은 파룬궁학원들을 상급공안국에 고발하여 박해했다. 그의 실책으로 학교숙사가 불에 탔고 그도 철직당했다.

⊗ 연길시벽수사회구역 전임 당지부서기 장씨는 악당의 거짓선전에 얼리워 공안계통과 배합하여 집을 수색하고 파룬궁학원의 컴퓨터와 대법책을 빼앗아갔으며 진상을 이야기하는 파룬궁학원들을 파출소에 붙들어갔다. 2005년 말에 그는 갑자기 암에 걸려 죽었다.

정의의 목소리

각계 인사들이

왕조균의 공개편지를 적극 지지

최근 안휘성 정치협상회 상무위원 왕조균(汪兆均)의 국가주석 호금도와 온가보 총리에게 보낸 공개편지가 발표된후 해외 각계 인사들의 관심과 지지를 받고 있으며 더욱이 서한에서 제기한 현재의 가장 절박한 일은 즉각 파룬궁 박해를 정지하는 것이라고 한데 대하여 해내외 각계인사들의 강렬한 반응을 일으켰다. 이번 중공의 파룬궁에 대한 불법적인 박해는 매 사람의 량심을 환기시키고 있으며 중국민중들이 끊임없이 진상을 요해함에 따라 공포에서 벗어나 공개적으로 파룬궁을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전호의 계속)

리대동(李大同)의 의사표시



중국청년보 기자이며 원 “빙점(冰点)”잡지 주필인 리대동은 <왕조균선생이 편지에서 제기한 문제는 모두 첨예하고 진실하며 상당히 중요한바 대다수 중국사람들이 말하고 싶어도 감히 말하지 못하는 말을 했다. 국가기구를 리용하여 전국범위에서 파룬궁을 탄압하는 것은 아무런 법률근거도 없으며 헌법을 위반한 행위이다. 탄압자의 형사책임추궁은 법률순서에 따라 죄를 정하고 기소해야 한다.>라고 표명했다.

리창옥(李昌玉)의 의사표시



우파루명을 벗겨줄데 대한 공개신을 쓴적이 있는 산동대학부속중학 퇴직교원 리창옥은 <대담히 파룬궁의 루명을 벗겨줄것을 요구한 왕조균은 담량이 있고 견식이 있으며 정의를 주장하는 정신은 참으로 귀중하다.>라고 표명했다.

마건(馬建)의 의사표시



영국에 거주한 중국청도태생인 작가 마건은 <왕조균의 가장 대단한 점은 정치협상이란 개념을 법률에 비추어 참답게 제출했으며 대담히 파룬궁을 위해 말했다. 한 기업가의 이러한 거동은 중국지식분자로 하여금 손에 땀을 쥐게 했다.>라고 표명했다.